

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느린학습자 학교 적응 지원 역량 높인다

윤 김주연 기자 | 승인 2026.06.12 09:35

초등 교사 대상 정신건강 역량 강화 교육 진행



▲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, 느린학습자 학교 적응 지원 역량 높인다 (경주시 제공)

[서프라이즈뉴스]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'느린학습자의 이해와 지원전략'을 주제로 정신건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.

이번 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린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지도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.

느린 학습자는 지능지수 71~84에 해당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·청소년을 의미하며 학습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또래보다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.

교육은 느린 학습자의 인지·정서적 특성 이해를 비롯해 학교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전략, 정서·사회성 발달을 위한 훈련 방법,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지 및 동기부여 접근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.

참석 교사들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지원 방법을 공유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박재홍 센터장은 “느린학습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서프라이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주연 기자